posco INTERNATIONAL

With POSCO

‘20년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1. 1. 28 / IR그룹)

경영실적 1. 연결손익 종합 – 1 page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 입니다.

당사 2020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세번째 장입니다.

먼저 연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20년 연간 매출 21조 4,724억원, 영업이익 4,745억원, 순이익 2,2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유가는 더디게 회복하였고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셧다운과 각국의 봉쇄 조치에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비록 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지만,
비상경영체제 아래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 손상 이슈를 최소화하며 순이익은 전년대비 271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유가하락과 판매량의 감소로
미얀마 가스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가 감소하였으나,
트레이딩 부문에서 고위험거래 근절과 고객사 관리로 이익률을 높여
영업이익이 하락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지표인 ROE는 7.5%, ROA는 2.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2. 요약 손익계산서 (연결기준) – 2 page

다음은 분기 손익 상세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5조 6,4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옥수수, 대두 등 곡물 판매량이 전분기比 73만톤이 늘어나며
매출액 증가를 이끌었고, 철강원료의 판매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87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5%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역 209억원, 미얀마 가스전 6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미얀마가스전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가스전 영업이익은 13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 해외 무역법인의 실적은 악화되고
수요 부진 속에 트레이딩 이익률은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하락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으로는 금융손익이 +20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와 함께
해외 투자자산의 외화차입금이 현지화 가치 상승에 따라 외환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계기업 손익은 미얀마육상가스관 KOREA LNG 등 영향으로
103억원이었으며

기타 내역으로는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241억원, 웨타동 광산에서 357억원
자산 손상 등으로 4분기에 760억원이 발생하였고,
연간으로는 지난해 2254억원에서 863억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자산손상 영향으로 4분기에 19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영실적 2. 요약 손익계산서 / 3. 재무상태표 (연결기준) – 2, 3 page

다음은 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년말 기준 총자산은 8조 3,280억원이며,
부채는 7,442억원 감소한 5조 1,671억원, 자본은 3조 1,609억원 입니다.

코로나로 커진 글로벌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비는 선별하여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시재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전년 대비 4,402억원 증가한 6,980억원을 보유하였습니다.

특히, 무역금융 단기차입을 줄이고 사채를 상환하는 등 부채비율을
전년 대비 30.5%포인트 줄인 163.5%를 기록하며
회사는 지속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경영실적 4.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입니다.

사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사업은 완성차 업체, 제철소 등 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자동차강판, 빌렛 및 슬라브의 판매가 급감하였으나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철강원료 판매가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도 늘어나며 매출을 만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만 풍력타워용 후판, 고탄소강 등
포스코 고급철강재의 판매 확대로 이익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철저한 고객 신용 조사 및 고위험 거래 근절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매출 10조 3,615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신장한 1,1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1년은 철강 제품 및 원자재 시황 회복세에 따라
산업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9~20년 동안 실시한 그룹사 해외 네트워크 통합을 바탕으로
포스코재 수출을 전담하며 글로벌 상권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호조를 보인 철강원료 사업에서도
구매포트폴리오와 수요층을 확대하여 지속 견조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적 4.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5 page

에너지인프라본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가스판매 가격이 10.1% 하락하였고, 정기유지보수 소요 등으로 판매량 역시 7.5% 감소하여 전년 대비 낮아진 **매출** 1조 **3,415억원**, **영업이익 2,8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LNG 트레이딩은
전년 대비 75% 신장한 280만톤의 거래량을 기록하였으나,
전력인프라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지연되고,
신규 거래도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 악화로 고전해야 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된 가스전 2단계 개발을
'20년 12월 재개하였고,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공정으로
개발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소재본부는 옥수수, 대두를 비롯한 곡물 트레이딩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외 석유화학, 자동차, 비철 등 소재 트레이딩 사업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년比 하락한 **7.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화학 및 비철 등 원자재 시황 하락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23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식량 공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는 '20년 식량거래량을 800만톤 달성하였고, '21년 안정적으로
취급량을 늘려가는 동시에, 관련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100% 자회사인 포스코 SPS를 통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아를 제조 판매하고 나아가 그룹사의 2차 전지사업을
연계한 소재 트래이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영실적 4.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5 page

구동모터코아와 관련하여서는 잠시 후 별도 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법인은 **무역법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및 이익이 모두 부진하였지만, **투자법인은** 인니팜, 파푸아발전소, 국내 SPS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총 **44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의 진정세와 글로벌 수요산업 회복에 따라 무역법인의 실적회복이 전망되고, 해외 투자자산들에서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니팜, 우크라이나곡물터미널 등 식량투자자산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전체 트레이딩 영역까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 Roadmap 1. 3대 핵심사업 : 성과 및 장기 전략 – 6 page

다음은 6페이지의 **3대 핵심사업의 성과 및 전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강사업은 '20년 미주, 중국 지역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하며
포스코재 수출 전담채널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21년에는 글로벌 상권을 더욱 확대하여 포스코재 판매 천만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전체 철강재 판매량은 '25년까지 매해 12%이상 성장하여
4천2백만톤의 철강재를 취급하는 독보적인 철강 트레이딩 부문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식량사업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년 곡물 취급량 800만톤을 달성하며
'15년 첫 사업규모의 9.5배에 해당하는 취급량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사는 '21년 취급량 목표 900만톤을 시작으로 '30년에는 2,500만톤의
곡물을 취급하는 장기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을 잇는 내륙 물류사업과 저장시설,
나아가 영농사업까지 연계하여 전략국가내 밸류체인 확장에 주력할 것이며
인니 팜농장에서는 **10만톤 양산체제**를 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사업은 **미얀마 가스전**의 2, 3단계 개발의 안정적인 진행과 함께
A-3광구내 마하구조 외 대체매장량 확보를 위해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태국 등 신규 광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점 취급양을 늘려나가고 있는 LNG 트레이딩은 그룹사 Captive 물량을
기반으로 더욱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 구매포트폴리오의 운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성장 Roadmap 2. 신사업 : 친환경 구동모터코아 사업 전략 – 7 page

다음은 7페이지로 회사의 신사업인 친환경 구동모터모아의 사업전략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은
전체 시장의 2~3%를 차지하며 아직 그 규모가 미미하나,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그 규모를 늘려가며, 가까운 미래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이전부터 회사의 100% 자회사인 SPS를 통해
친환경차용 구동모터코아를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판매량은 지난해 69만대에서 금년에는 126만대로 증대시키고,
2025년에는 421만대로 글로벌 마켓쉐어 20%, 매출 7,500억원의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회사는 2025년까지 매출액기준 2.5조원인 천만대의 구동모터코아
수주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5,000억원의 매출액입니다.
아울러, 360만대의 추가 수주건을 협상 중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는 국내 생산능력을 국내외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 200만대의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각 완성차업체와 부품사들에 안정적인 납기를 제공하고자
2024년까지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국내 200만대 판매와 더불어
중국, 유럽, 북미를 비롯 인도 등 해외시장에 200만대 규모의 구동모터코아를
판매하여 전체 친환경차 시장의 20%를 공급하는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 연간 실적발표를 마치겠습니다.